

“불법파견 철폐, 5조3교대제 생취한다”

노조 철강업종 분과 첫 노동자대회...현대차, 포스코 등 철강자본, 불법파견 은폐·노조파괴 열 올려

노조가 9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와 임단투 승리를 위한 2018년 철강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번 철강노동자대회는 비정규직, 정규직, 사업장을 넘어 노조 철강업종 분과 전체 지회가 참가한 첫 집회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철강 조합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5조3교대제 실시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를 시작하며 “철강공장은 불법파견이 아닌 곳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홍승환 노조 총남자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출퇴근하고 같은 제품을 만든다. 비정규직의 임금과 상여금은 정규직 절반이고 안전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 누가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

이병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 자본이 업체 폐업과 통폐합으로 불법파견 증가를 은폐하고 위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우만 포스코사내허청지회 동화기업분회장은 “포스코 50년의 무노조 경영을 깨고 포스코 현장에서 금속노조 가입 사업을 벌여 12개 분회 800명의 노동자를 조직했다”라고 보고했다. 이우만 분회장은 “포스코는 교섭창구단일화로 분회의 교섭권을 빼고, 승진 등을 미끼로 금속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등 노조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5조3교대 시행에 미적거리라는 회사를 질타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의 노무관리 전략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경연 노조 총남자부 현대제철지회장은 “현대차와 계열 부품사들의 임단협이 하나들 끝나

가지만 현대제철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회는 현대차 자본 노무관리의 괴리를 끊고 제철만의 독자 교섭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5조3교대 협약 체결 등 철강노동자를 위한 투쟁에 현대제철지회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결의했다.

노조 총남자부, 포항지부,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시측과 2020년까지 5조3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구체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조 철강 조합원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5조3교대제 실시, 노조탄압 중단 등의 요구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렸다.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에 도착해 마무리 집회를 벌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를 마무리하며 “노조가 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나와 내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을 움직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이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9월과 10월 투쟁을 준비하겠다. 내 삶을 바꾸는 11월 총파업 투쟁을 제대로 실천하자”라고 당부했다.

“미루지 말고 시행하라. 감추지 말고 공개하라”

노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기업에 고용된 노동부’ 오명 스스로 벗어라”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벌인 조사 내용과 세부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9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 이행 촉구, 전체 자료 공개 요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노조는 노동부가 개혁위 권고사항을 한 달이 지나도록 공개고,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노조는 ▲개혁위 권고사항 즉시 이행 ▲추가 진상조사 실시 ▲조사결과 등 모든 정보 완전 공개 ▲적폐 인사 청산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개혁위가 작성한 세부 조사보고서와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파괴 피해 사업장들이 그동안 당한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례를 고발했다.

“1만 2천 총남이 함께 싸운다”

충남지부, 현담·세일철강지회 등 미타결 사업장 집중투쟁 전개... “노조파괴 야욕 반드시 분쇄한다”

노조 충남지부가 9월 5일 ‘충남지부 미타결 사업장 집중투쟁의 날’ 을 열고 현담산업지회와 세일철강지회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현담산업지회는 충남 아산공장 안에서 ‘민주노조 사수, 개인인 철회, 성실교섭 촉구, 임단투 승리 현담산업지회 총파업 출정식’ 을 열고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기업노조였던 현담산업지회는 올해 2월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현담 자본에 교섭을 요구했다. 시측은 지회가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자 현장 활동을 문제 삼아 현담산업 아산지회장과 경주지회장을 징계했다. 노사교섭 중에 노조 교섭대표를 징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지회는 ▲임금·복지 관련 요구 ▲회사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등 고용 문제 ▲아산과 경주지회장 징계 철회 등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시측은 김안장 출신 변호사가 만든 노무법인 LAB파트너스의 조언을 받아 노조가 인사경영에 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책임을 지회에 떠넘기고 있다.

지회는 인내를 갖고 14차례나 교섭을 벌였다. 일본 아산공업주이 95%의 자본은 가진 현담 자본은 권한 없는 대표이사를 내세워 교섭을 사실상 파탄 냈다.

총파업 출정식에서 김규현 노조 충남지부 현담산



업지회장은 “현담 자본은 기업노조일 때는 사무직과 과장들도 노조에 가입하라더니, 금속노조에 가입하니 조합원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 지회장으로서 해고를 각오하고 임단협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대법원이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아산그룹이 LAB파트너스를 고용해 금속노조를 부정하고 술책을 꾸민다면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야욕을 반드시 분쇄하겠다” 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총파업 출정식에 노조 경주지부 현담산업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두 지회 상집 간부들의 합동공연으로 출정식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현담산업지회 총파업 출정식을 마친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세일철강지회로 이동해 ‘민주노조 사수, 공장폐업 반대, 희망퇴직 철회, 성실교섭 촉구, 세일

철강지회 투쟁 승리 충남지부 결의대회’ 를 열었다.

정용재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여기 운동장 잔디보다 못한 대우를 건다 못해 세일철강 25명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노조를 만들었다. 시측은 이들을 강제 전환배치하고 노조를 탄압한다. 충남지부가 25명 조합원을 지키고 다른 52명 비조합원도 노조에 가입하도록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며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김장식 지회장과 모든 조합원이 연단으로 나왔다. 김장식 지회장은 “세일 자본은 삼야수당과 상여금을 빼앗았다. 임금은 동결하고 회사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을 했다. 정말 양아치 같은 악질 기업이다” 리며 분노했다.

김장식 지회장은 “세일 자본은 공장 땅값이 오르자 폐업하려고 수십 년간 일한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위로금 몇 푼 받고 공장을 떠날 수 없다. 경영진에게 경영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와 지회 조합원들은 공장을 돌며 세일 자본에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비조합원들에게는 금속노조에 가입해 ‘함께 살자’ 라고 권유했다. 공장 순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정문 앞에 모여 투쟁승리를 다짐하는 리본을 달고 파업기를 불렀다.

“주얼리 노동자 권리·건강 지킨다”

서울지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상담신고센터 운영... “서울노동청 주얼리 노동자 권리 보호 나서라”

노조 서울지부와 주얼리 노동자권리 찾기사업단(준)이 서울 종로에서 보석세공 일을 하는 6천 5백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등 본격 투쟁에 나섰다.

노조 서울지부와 권리 찾기사업단은 9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자랑고용노동청 앞에서 ‘주얼리 노동자 권리 찾기 신고 상담센터 운영과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지부와 권리 찾기 사업단은 신고 상담센터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 위반행위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문제 등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노동청은 고소·고발·진정에 대해 신고자 신원보호, 특별·수시근로감독 실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등의 노력을 다하라”

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부와 권리 찾기사업단(준)은 “보석세공 노동자들이 자신에게도 노조 할 권리가 있고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담과 조합 가입 문의가 늘고 있다” 라고 밝혔다.